



“꿈이 자라 60년 - 빛이 되어 100년!”

회 의 록



결	부의장	의장
재		

회 의 명	제1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일 시	2024.03.26.(화). 09:30	장 소	도익서홀(M402)
안 건	1.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 검토		
참석 의원	김태순 의장, 김영준 부의장, 강선주 평의원, 최봉문 평의원, 김영림 평의원, 동인범 평의원, 박상호 평의원, 이성호 평의원, 공성민 평의원, 오종탁 평의원		
위임 의원			
불참 의원	이은정 평의원		
간 사	고광언		

회 의 내 용

1. 성원보고 : 대학평의원회 간사가 재적 평의원 11명 중 출석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김태순 의장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업무 보고 : 간사가 학생 및 조교 평의원 위촉 변경 사항과 도중만 교수 평의원이 연구년을 맞아 결원이 된 상태이며 교수 평의원 위촉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하고, 제11차 대학 평의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다.

4. 안건 심의

가. 안건번호 9-12-01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 검토

○ 의장이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 검토의 건을 상정하고 미리 배포한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토대로 평의원들의 검토의견을 요청하다.

- 김영준 부의장이 정확히 무엇을 검토해달라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질의하니 의장이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임을 말하다.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은 2년 사전 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2026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이 아닌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2024년 초부터 논의하여 마련하는 것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느낌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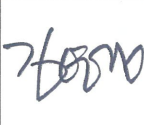
- 최봉문 평의원이 2025학년도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안)을 보니 감원은 입시 결과만 가지고 미달 인원을 단순하게 집행되었고, 자율전공학부 신설은 너무 쉽게 허용되었다. 학과신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한다. 53명의 정원을 가지는 거대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위하여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를 모집정지하고 각 학과 정원을 과대하게 감원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미래전략본부 이성상 본부장이 자율전공학부 신설에 대하여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가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위한 입학정원을 계획하고 학과 정원을 감원한 것이 아니다. 2023년 8월 29일 위원회에서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원칙을 세워 교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된 대로 각 학과별 미달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감원하고, 22명을 미달하는 학과에 대해서는 모집정지하기로 원칙을 세웠으며, 그 원칙에 따라 미달 인원,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감원을 요청한 인원, 모집정지하는 인원 등을 포함한 인원으로 배정한 것이며, 미술·디자인대학과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과 협의하여 2유형의 창의예술자율전공학부 30명을 배정하였고, 나머지 53명은 1유형으로 사범대학, 미술·디자인대학과 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전공학부로 배정하였음을 보고하다.
-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양재찬 위원장이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모집정지는 자율전공학부 신설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22명을 미달하여 모집정지 요건이 되었던 학과가 3개 학과가 있었으나 당시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에서 모집정지 1년을 유보하였으며, 2024학년도 입시결과 (나머지 4개 학과별 정원을 충원하였으나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는 충원하지 못한 결과 모집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에서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을 신청하였으나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에서는 긴 시간 논의 끝에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에 대한 논의는 1년 유보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다.
- 강선주 평의원이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에 대하여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가 모집정지로 단절되지 않고 아시아문화학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일본문화 등을 접목한 아시아문화학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수용되지 못한 이유를 질의하다.
-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모집정지가 예상되어 사전에 학과통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학과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안을 가져왔다. 중국문화·비즈니스학과 모집정지를 결정한 것은 2년간 계속 정원을 충원하지 못한 결과로 결정된 것이고, 아시아문화학과 신설이 수용되지 못한 것은 편제 및 입학정원조정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학과가 일본어학인지 일본문화인지 중국문화, 심지어는 장차 한국학까지도 포함하는 아시아문화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안으로 올라와서 학과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입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1년간 더 준비하여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이 되도록 10월부터 신설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다.
- 최봉문 평의원이 신설학과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동인범 평의원이 자율전공학과에 대한 교과과정은 준비되었는지 질의하다.
- 미래전략본부 본부장이 1학년 동안에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2학년부서는 학생이 선택한 전공학과에 가서 수업하도록 하게 할 것이며, 자기주도 자율전공의 경우에도 자

기주도 자율전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내와 배재대학에 개설된 과목을 과목을 자율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기주도자율전공의 경우에도 별도의 교과과정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 김영준 부의장이 자율전공학부 입학정원을 53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불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내년에는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시간에 쫓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요청하다.

5. 폐회

- 회무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10시 58분이었다.

위원	의장 김 태 순	부의장 김 영 준	평의원 강 선 주	평의원 공 성 민	평의원 김 영 립	평의원 동 인 범	평의원 박 상 호	평의원 오 종 탁
서명								

위원	평의원 이 성 호	평의원 이 은 정	평의원 최 봉 문
서명		불참	

11월 2일 수요일 10시 58분